

LG CNS, 인니 시나르마스와 합작...현지 IT 서비스 시장 공략

최현석 기자 = 디지털 전환(DX) 전문기업 LG CNS는 27일 인도네시아 대기업 시나르마스와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반기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은 인도네시아 기업, 공공 고객을 대상으로 ▲ 데이터센터 건설·구축·운영 ▲ 클라우드 전환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LG CNS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합작법인에 이식하고, 시나르마스는 인도네시아 내 사업 기회 발굴 및 확보에 나선다.

합작법인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을 필두로 스마트시티, 금융IT 등 인도네시아의 IT서비스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IT서비스 시장은 2023년 약 4조2천억원에서 연평균 23%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9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LG CNS 현신균 대표는 "DX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시나르마스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DX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나르마스 프랭키 우스만 위자야 회장은 "LG CNS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선도적인 기술 플랫폼을 구축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양사 모두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